

인기 드라마·예능 ‘형만 한 아우’ 꿈꾼다

중영 앞둔 ‘열혈사제2’ 서현우

“야심 많은 부장검사 역할 말투부터 ‘꼰대’ 부각 노력”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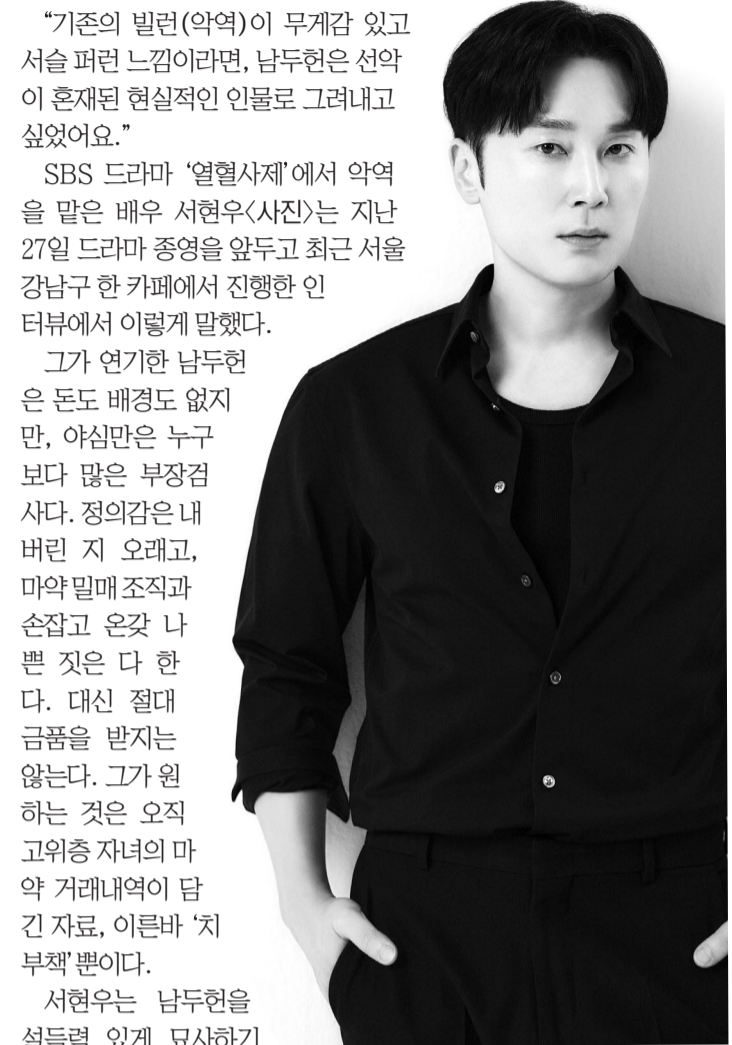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징어게임’ 3년만에 속편 공개… ‘사냥개들’ 내년엔 시즌2 공개
‘흑백요리사2’ 백종원 출연 확정… ‘냉장고를 부탁해’ 5년만에 부활

“형만 한 아우 없다”는 옛 속담은 오늘날 방송계에서도 통한다.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는 많지만,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간 속편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에도 여전히 전작을 뛰어넘겠다는 꿈을 안은 속편 여럿이 시청자를 만난다. ◇“연속안타 어려워”… ‘오징어 게임’ 시즌2·3에 쏠리는 눈을 한해 공개된 드라마 후속작을 살펴보면 전작을 뛰어넘는 기네스 비스킷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2021년 당시 넷플릭스 TV소 부문 전 세계 1위에 오른 ‘지옥’의 후속 ‘지옥2’는 큰 화제를 부르지 못했고, 2019년 시청률 22%를 기록한 ‘열혈사제’의 후속 ‘열혈사제2’도 10% 초반대에 머물렀다. 신선한 캐릭터와 이야기로 한 차례 ‘흥’을 치는 것은 가능해도, 이른바 ‘히팅 스트릭’ (연속 안타)을 치기는 더 어렵

다는 것이 콘텐츠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올해 연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K-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내놓은 데 이어 내년 여름께 시즌3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장 시즌2에 대해선 평이 엇갈리지만, 화제성만큼은 입증됐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시즌2는 28일 92개국에서 시청 1위 콘텐츠에 올랐다. 황영미 영화 평론가는 “(전작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시즌2를 일단 보게는 된다”며 “화제성이 시즌1보다 결코 덜할 것까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오징어 게임’ 보다는 체급이 작지만, 마니아층을 모았던 액션 드라마들도 시즌2로 돌아온다. 두 청년이 악랄한 사채업자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다룬 ‘사냥개들’이 내년엔 시즌2를 공개하고, 학교 폭력을 다룬 ‘악한영웅’은 ‘악한영웅 클레

스 2’라는 이름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시즌제 정착한 예능… 4~5년 공백 갠 예능 후속도 눈길 올해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화제성을 거둔 요리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는 내년엔 공장 시즌2를 내놓는다. 시즌1에 이어 백종원 대표가 출연하고, 제작진은 영국 요리사 고든 램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기 연예 프로그램 ‘환승연애’와 ‘솔로지옥’은 둘 다 시즌 4로 돌아온다.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예능들도 눈에 띈다. 티빙은 방 탈출 콘셉트의 예능 ‘대탈출’ 시리즈를 ‘대탈출 리부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대탈출’이 2021년 시즌4로 마무리된 지 4년 만이다. JTBC 요리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는 2019년 중영했다가 지난 15일 5년 만에 다시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라는 맛집 같은 이름으로 돌아왔다. 콘텐츠 업계가 계속해서 후속 시리즈를 내놓는 것은 손쉽게 기존 시청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콘텐츠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싶은 창작자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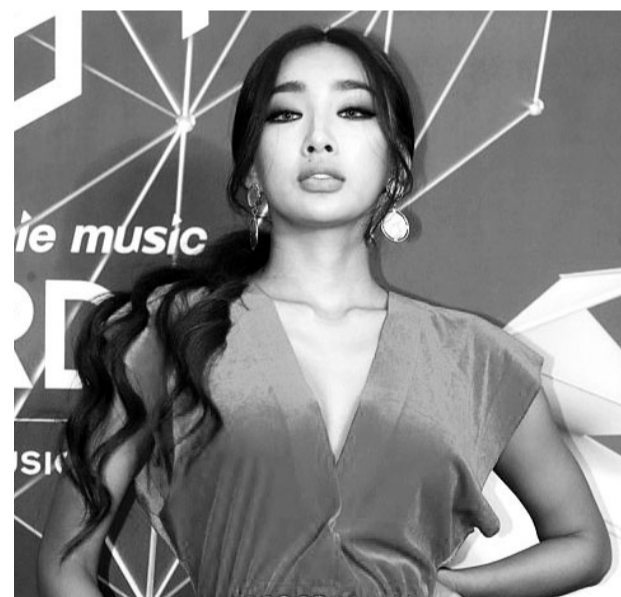
“기존의 빌런(악역)이 무겁고 서늘 퍼런 느낌이라면, 남두현은 선악이 혼재된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싶었어요.” SBS 드라마 ‘열혈사제’에서 악역 맡은 배우 서현우(사진)는 지난 27일 드라마 중영을 앞두고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연기한 남두현은 돈도 배경도 없지만, 야심만은 누구보다 많은 부장검사다. 정의감은 내버린 지 오래고, 마약밀매 조직과 손잡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다. 대신 절대 금품을 받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고위층 자녀의 마약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 이른바 ‘치부책’ 뿐이다. 서현우는 남두현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기 위해 소품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일부러 험랄한 정장 세 벌을 준비해 내내 돌려 입었다. 고가의 명품 시계 대신 카시오 전자시계를 차고, 자동차는 중고로 산 느낌이 나는 그랜저로 골랐다. 서현우는 “부산 사투리로 좀 더 어르신이 쓸 법한 말투로 구사했다”며 “남두현의 ‘꼰대’스럽고 딱 막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팔기스무디를 좋아한다는 설정은 원래 때문에 있었다”면서도 “제 나름대로 스무디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남두현이 생수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는 용도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세하게 캐릭터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태도는 대학 시절부터 간직해 온 것이다. 서현우는 국민대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다가 갑자기 진로를 틀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다.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연극영화과 교수를 하려고 한다”고 거짓말로 돌려댔다. 서현우는 “대학에서 제 별명은 ‘서 박사’였다”며 “연극영화과 학생들은 보통 수업에 맨몸으로 오는데, 저는 늘 메모했다. 동기들은 ‘뭘 그렇게 쓰느냐. 바로 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저는 학구적으로 파고드는 타입이었다”고 돌아봤다. 학과파 ‘서 박사’는 2010년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으로 데뷔한 이래 14년 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여러 캐릭터를 연기했다. 주로 악역이 많았지만, 다음에는 꼭 멜로에 도전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현실적인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껏 해 온 역할들은 대부분 목표나 욕망이 뚜렷한 인물들이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질투도 하면서 절절한 감정을 교류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네요. 아,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 중년 멜로라고 해야할까요?” /연합뉴스

문가비 “임신 이유로 정우성에 결혼 요구한 적 없어”

SNS에 “아이, 실수 결과물 아냐”

배우 정우성(51)과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은 모델 문가비(35·사진)가 “아이는 실수도, 실수로 인한 결과물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가비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가비는 28일 개인 소셜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추측성 보도가 쏟아져 나오며 “모두를 위해 침묵의 길을 선택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결국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개인 SNS에 공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정우성과 정식으로 교제하지 않은 채 임신하게 됐고, 양육비를 목적으로 결혼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문가비는 “(정우성과)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이래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좋은 만남을 이어왔고,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만남은 이어졌다”며 “2024년 1월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단 한 차례도 대면한 적이 없으며 저는 그 사람에게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의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 없이 혼자서 출산을 감행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문가비는 “과분한 선물처럼 찾아와 준 아이를 만나기로 한 것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다”며 “배 속의 아이와 함께 설레고 웃고 행복해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단순히 현재 두 사람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관계의 형태라는 이유로 아이가 실수이며, 성장해 나가며 불행할 것이라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